



비전대, 동아보건대와 사업 공유·협업 간담회

전주비전대학교 LINC3.0 사업단의 드론·영상·콘텐츠산업 기업협업센터(ICC)는 14일 본교 세미나실에서 동아보건대 HIVE사업단과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위한 공유·협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협업센터는 지역 내 산업체와 연계해 대학의 특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LINC 3.0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조직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비전대 드론융합학과 김수현 교수와 동아보건대학교 HIVE사업단 정승희 교수 등 두 대학의 사업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대학의 간담회 주요 이슈로는 드론·영상·콘텐츠산업 ICC의 주요 업무와 운영실적, △타사업단과 공유·협업을 통한 우수사례 성과 논의, △향후 대학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구성안 토의, △ ICC운영 성과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이다.

최승훈 단장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의 성과 제고를 위해 대학의 특화분야와 연계된 기업협업센터(ICC)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ICC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타사업단과의 공유·협업 활동에도 민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보건대학교 HIVE사업단 정승희 교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협업센터 공동 프로그램 추진방향에 대해 논할 수 있었고 두 대학이 공동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맑은물봉사대, '전주사람'에 100만원 기부

전주시맑은물봉사대(회장 소원국)는 15일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 시각장애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에 소속된 수도검침원 180명으로 구성된 전주시맑은물봉사대는 수도 검침을 하면서 전주지역 곳곳을 살피며 만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기부활동에 나서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에 조직된 전주시맑은물봉사대는 그동안 △지역 내 꽃밭 가꾸기 봉사활동, △무두부기 쓰레기 수거 △용담댐 수변구역 정화 활동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봉사를 실천해왔다.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은 "전주시맑은물봉사대 회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도움이 필요한 시각장애인 이웃 발걸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대, 2학기 선배 디자이너 멘토링 주최

군산대학교 시각디자인 동아리인 랑광캐뉼러브커뮤니케이션(지도: 이지현 교수, 동장: 신수아)이 '선배 디자이너 멘토링'을 진행한다.

랑광캐뉼러브커뮤니케이션은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결성된 동아리로, 올해 1학기부터 글로브기업, 대기업의 또는 유명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근무 중인 선배들을 초청하여 멘토링을 하고 있다.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현직 디자이너의 멘토링은 산업계 동향 파악 및 취업 연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9월부터 11월까지 2학기에는 커머스 스타트업, 방송사, OT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디자이너 3인의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번째 멘토링은 9월 21일 추미클래스 커머스의 BX디자인이 너인 이미지 졸업생이 웹엑스에서 진행한다. 이미지 디자이너는 CX리포트로 태대로 한 앱 및 프로모션 디자인 기획자, 마케터 등 비디자이너들과 소통하기 위한 피그마(Figma) 활용, 익스카일 및 인터널 브랜딩 활동 등에 대해 멘토링을 할 예정이다. /군산=김광근 기자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인재 키운다

일토씨엔엠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1000만원 기탁

무주군은 지난 14일 (유)일토씨엔엠이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측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유)일토씨엔엠 최규원 대표는 "무주군의 환경기초시설인 광역전처리시설과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지역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라며 "무주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꿈을 이어나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유)일토씨엔엠은 환경시설 및 장비의 관리 운영과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노하우를 갖춘 종합 환경전문기업으로, 2020년도에도 무주군에 장학금 5백만 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재해구호와 이웃돕기 성금 기부활동도 꾸준히 이어오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갔다.

한편,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된 이래 총 108억 원의 기금을 모아 인재 육성사업학교 운영과 장학금 지급,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259명에게 13억 3천만 원의 반디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무주 관내 초·중·고교 특기장학생 및 관내 고등학교



에 진학한 학생 1,247명에게도 7억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기업, 단체의 기탁과 국민 재경향위원회들이 한 달에 만 원 이상씩 후원해주는 것을 기반으로 하며 반디장학금 신청 및 장학금 후원과 관련한 내용은 무주군청 홈페이지(www.mju.gkr)에서 확인하거나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320-2139)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기자

전북농민리더, 익산서 민족농업전진대회 개최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어가는 2천여 전북 농업인들이 익산에서 선진농업발전을 결의했다.

익산시는 전북농업의 발전과 단합의 한바탕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민족농업전진대회'가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하여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대중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과 시군 농민회장, 도의원 및 시의원 등 2천 여명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북도연맹이 주최하고 익산시농민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매년 각 시·군을 순회하여 개최되었으나,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연기되었다가 올해 익산시에서 3년 만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4개 시·군 농민회들이 친목과 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으로써 개최식 선언을 시작으로 농민 선언문 낭독 등 기념식과 체육행사(농민운동회), 문화행사(대동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며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통해 영농 의욕을 고취시켰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은 "전북도연맹 민족농업전진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현재 쌀값폭락 및 농지재갈 상승 등으로 우리 농업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하여 한마음으로 우리농업·농촌이 더욱 더 탄실해지고, 농업이 미래의 생명산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시농기센터, 노년 위한 가을철 약선 요리 실습 진행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명품농업대학 약선음식반 2명제를 대상으로 비위를 보하고 쌀쌀한 가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년층을 위한 가을철 약선 요리 실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마법밥은 마와 밤을 이용해 만든 음식으로, 마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폐와 신장을 보하며, 밤은 한의사들이 추천하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식재료이고, 연포탕은 원래 부드러운 두부처럼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국물을 내고 그 국물에 채소와 버섯 그리고 두부 등을 넣어 환절기 보양식으로 최고의 음식이다.

한 교육생은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약선요리를 교육생들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즐거웠다"고 전했다. 한편 고인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약선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좋은 식



재료와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하반기 한미약품 채용 설명회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이상행)는 15일 의과학대학(전정관)에서 제약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을 위한 2022년 하반기 한미약품(주)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에서는 △한미약품 회사 및 직무소개 △2022년 하반기 정기 채용 내용 소개 △제약산업에 대한 소개 등 채용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채용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이날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환경생명과학과를 포함한 12개 학과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약품 인사담당자가 직접 진행했다.

이상행 센터장은 "앞으로도 학생 및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과 연계해 실질적 채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남원소방서,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가 어린이들에게 소방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15일에는 아이맘행복누리센터에서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화재 및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모두 조심해요'라는 주제로 1시간동안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비상구 찾기, 화재 예방 방법,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이었으며, 심폐소생술 마네킹 실습 및 교육용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진압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동감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성기 소방서장은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 등의 소방안전교육은 조기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부터 성인, 노인까지 대상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영자 김제시의장, 아동폭력 근절 릴레이 동참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ENDViolence 캠페인에 동참했다.

#ENDViolence 캠페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향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외교부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함께 펼치고 있는 인식개선 활동으로 '#ENDViolence' 로고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캠페인을 이어나갈 3명을 지명하여 릴레이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동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온 해당 캠페인에 참여한 이원택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다음 참가자로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을 지명하면서 김영자 의장 또한 본인의 개인 SNS와 김제시의회 공식 SNS채널을 통해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시민들의 공감과 연대를 호소했다.

김영자 의장은 "국제사회 연대로 전세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고의 해결책은 우리의 관심"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시의회도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인권보호,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김영일 군산시의장,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15일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해 보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일 의장과 문미숙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사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미숙 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저출산 영향으로 보육아동수가 감소하여 어린이집 운영난을 겪고 있어 예산지원이 절실하다"며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영유아의 급간식 질 향상을 위해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급간식 인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2022년 전북교육청에서 사업유치원 1인 13만5,000원을 지원한다"며 "어린이집도 도시사 공약사업에 맞춰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영일 의장은 "저출산 영향과 코로나19 등 다양한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집 연합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광근기자



남원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지원

남원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남원시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부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취업 및 원거리 등의 이유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위해 읍면동 순회교육으로 계획한 부부교육은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총88명 부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부간의 신뢰 및 관계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가정의 기반을 이루는 부부가 양성 평등한 관계가 되기 위한 실천 방법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의 성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가 알아야 할 아동 권리 기본교육과 가족 정책 예방 교육 등을 추가로 진행하여 부모로서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다문화인식개선, 결혼이민자 취업과 같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정에서 겪는 부부 자녀 문제 등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며 문화이해, 사례공유, 센터 활용과 같은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